

제 3 강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2강 복습

-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자리
- 성서의 다양한 예수 고백
- 고종세 예수의 본질
 - 참 하나님, 참 인간
- 역사적 예수 연구
-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일주일 동안 잘 들 지내셨나요?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주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즉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분들이시지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난 주에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개인적이고 매우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다른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 자연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것이기에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신앙고백도 사실은 더 큰 차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다종교, 다원적 사회에서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이상 종교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경제적 착취와 고난, 각종 불평등과 약자들의 차별이 있는 이 땅에서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생태계의 위기가 가중화 되고, 물질문명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는 또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실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선포와 복음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자리에 대한 고민이 더 폭 넓고 깊어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서 특히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각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살폈고, 이어서 고 종세 그리스도교 신학 속에 교리로 정식화 된 예수의 본질 즉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명제가 어떻게 생성 발전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그리스도교의 생존과 선교의 상황에서 예수의 신성은 가장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었고, 인간의 중보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또한 대속제물이라는 종교제의적 신학 속에서 예수의 인성이 요구되었음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세는 예수의 신성이 인성보다 훨씬 강조되었던 시기였기에, 중세를 지나 근대 계몽주의의 시대에 오면 다시 예수의 인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역사적 예수 연구가 활발해 진다는 것도 배웠지요.

지난 200년의 역사적 예수 탐구의 세월 속에서 예수가 전하신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와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가?”를 살펴보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임을 새삼 떠올렸지요.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권력이 그리스도가 된 세상에서 또는 내 욕망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할 때 우리는 “돈도 권력도 욕망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내어 주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높은 신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은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행동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는 행위와 존재가 곧 일치하는 분이셨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개방함으로써 참 하느님이 되셨고, 또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한 인간이 되어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셨음을 배웠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논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느님도 신비이시지만 인간도 신비라는 것”,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란 존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인간의 경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정재경 씨의 편지글에 나오는 짧은 한 구절, “자기를 버리고 찢고 상처를 내는 자들을 향해서도 향기를 발하는 향나무에서 무언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자”¹⁾인 예수가 보여준 삶의 자세를 우리 한명 한명이 그를 따를 수 있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서 후회할 일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지난 주 복습은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느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느님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겠지요. 제가 종이를 나눠 드릴 테니, 이 종이를 반으로 접으셔서 한쪽에는 예전에 생각했던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시고, 지금은 달라진 요즘 생각하는 하느님을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도 나눠 보지요^^

(모두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분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발표의 종류를 보면 초자연적 유신론에서 범재신론으로 즉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내재를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 교회에서 하느님에 대하여 배웠던, 들었던 이미지들도 있었고, 개인의 경험 속에서 느꼈던 것들도 있었다.)

여기 이 PPT 화면을 보시지요. 이게 뭐지요? 예. 원입니다. 이것은 원불교가 사용하는 일원상입니다. 불교에는 불상이 있는데, 원불교에는 일원상이 있습니다. 불상과 일원상의 차이는 뭘까요? 불상은 아무래도 훨씬 인간적 느낌이 나지요~, 그에 비해 일원상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종교적 인간의 욕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또는 궁극의 실재에 대해 뭔가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 말이에요.

1) 정재현,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한울, 2006. 239 쪽.

3강 우리의 하느님과 예수의 하느님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도 분명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2계명이 있음에도, 뭔가 하느님 이미지를 계속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가 시켜서 한 것이긴 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형상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본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1 4장 12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형상을 그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말하고 그리고 섬기고 생각해 왔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말하려니까, 무언가에 빚대어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이런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神-學)의 불가능성

- 하나님(神)과 인간의 말(學)의 거리 자각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
 (Whereof one cannot speak, thereof
 one must be silent. 비트겐슈타인)

 “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道, 可道, 非常道. 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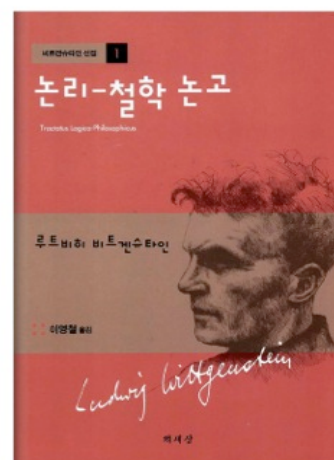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cfiler25.uf.tistory.com/image/172820495042F227091E9C>

그동안 우리는 신학을 “하느님에 대한 학문”으로 불러 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핀 대로 하느님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언어의 유약함과 불완전성이 무한성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자도 궁극적 실재인 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도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초대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느님에 관해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느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당신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²⁾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충고했던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삶의 유한성에 맞닥뜨릴 때면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하느님!”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튼 신학은 말 그대로 하느님 이야기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느님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 신학이라 말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 신학에 하느님과 학문의 거리 즉 신(神)과 학(學)의 거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학문의 언어 즉 개념으로 신을 표현하거나 잡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학하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신-학(神-學)이란?

•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기

“ 신학적 구성 작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 말/믿음을
성찰하기”

“ 하나님 – 세계 – 인간
상상하기 “

그림 출처, <http://dabia.net/xs/free/271025>



오늘날 신학은 하느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생각, 또는 말의 성찰을 과제로 삼습니다. 인간의 됾됨이가 정말 하느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생겨먹은 것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말과 생각이 세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말들이 인간의 삶에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인지 성찰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방향

2) 마커스 보그, <새로 만난 하느님>,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91쪽.

성, 인간의 자리가 어떠하면 좋은지를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해보려는 노력이 신학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말들을 살펴볼까요! 제1성서(구약)에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아마도 구원과 창조가 아닐까 합니다.

성서의 하나님

- 구원의 하나님
- 창조의 하나님



그림 출처, <http://ccckorea.net/?p=11>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은 가장 근원적인 하느님 체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애굽의 탈출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은 모든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때, “야”라는 어간을 살펴보면 “나의 하느님”이란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야훼 하느님은 인간과 상대하시는 인격적 존재자로서 묘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지요. 출애굽 사건에서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더 전에는 노아를 만나셨던 그런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때로 돌아가보면 뭔가 자신의 문제나 고통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관적 체험이 있다든지 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개인이든 공동체가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하느님 체험의 첫걸음은 바로 구원의 하느님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하느님 체험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신앙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000 :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하느님도 누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000 :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을 돌봐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

조주 하느님은 세상을 돌보는 하느님이라는 말도 되겠지요.

000 :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돌봐 주실 것 같아요.

000 : 창조주 하느님은 질서를 잡아가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000 : 성서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창조도 하시지만, 파괴도 하시지요. 절멸을 시키시잖아요. 노아의 이야기에서 모두 절멸시키지만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은 구하시잖아요. 창조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과 맞물려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보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학자들이신 것 같아요. 성서의 창조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 신화의 영향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노동을 시키기 위해 신의 노예로 창조했다는 제국의 신화에 맞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 평등하며,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기쁨이 되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쉼도 가져야 한다는 인간권리 선언도 한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여 인간의 죄로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만년천년 권력을 누리며 살 것처럼 하는 지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장치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장면에서는 우리들이 삶의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모든 창조를 마치고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장면을 통해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지요.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인간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겸손한 인간을 양성하기도 하고, 한편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너머에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상대적인 피조물들에 대한 집착 또는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월적 시각과 자유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또한 내가 만들지 않았으나 하느님께서 이미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계와 생명을 보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한편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동시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에 소중하게 다뤄야겠고요. 그런데 하느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본문은 청지기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용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태초에 과연 무엇을 창조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창조하셨다는 ‘관념론’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유물론’의 씨앗이 싹틀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말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창조적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물질적인 면, 정신적인 면도 있지만 하느님께 얻은 것은 무엇보다 창조적 자유라고 이해한 것이지요. 요즈음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이 창조적 자유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대에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이 다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창조의 하느님 외에 또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 성서의 하느님 개념은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모두 유일신 종교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지요. 물론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 하는 지점에서 앞의 두 종교와 약간은 다릅니다. 유일신과 삼위일체는 많은 교회에서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으나 쉬운

언어로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해 많은 교인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신과 삼위일체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유일신과 삼위일체
- 예수 때문에 ~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 삼위일체적 사유의 의미



그림 출처, <http://cafe.daum.net/chdnnjs2007>



유일신에 관해서는 한신대 김경재 교수님의 저작 <이름 없는 하느님>에 매주 잘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지요. 일단 유일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착각하듯 숫자를 나타내는 “하나”에다가 존칭 어미인 “님”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일신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둘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에서의 유일신도 아닙니다. 다신론적 배경에서 성서가 쓰였기에 다소 하느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유일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궁극적인 실재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것은 이미 유한성의 범주에 하느님을 묶어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1성서의 계약 개념이 마치 다신들 중에 가장 센 신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오해된다면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족과의 차별과 배타적 태도를 보이게 만들고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정복과 살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듭니다. 유일신 개념은 이런 다신 중의 왕신이라는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진정한 유일신이라면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란 원래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에 대해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줄곧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나오고, 모세가 하느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느님이 답을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있을 곳에 있겠다”라는 대답은 모세, 네가 어딜 가든 거기에 있을테니 걱정말고 가라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이지 이름을 밝혀 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 넘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원리의 근원으로 작동하는 유일신 개념은 부족신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모든 존재자가 한 신의 자녀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유일신만이 참 신이므로 그 외에 것들이 신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신으로 군림하는 모든 세력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힘 또한 유일신 신앙에서 가능합니다. 유일신이 주신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높은 윤리적 의식외 확보 될 뿐만 아니라 존재의 능력과 생명의 다함 없는 무궁성으로부터 힘을 얻어 모든 절망의 상황도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런데 이런 유일신 개념이 자칫 부족이나 개별 국가의 일신으로 오해될 때는 종교제국주의의 빌미를 주고, 자기 절대화와 배타주의로 흘러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녔던 유일신 신앙의 장단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살펴 볼까요. 우선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는 수학적, 형식 논리적 명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초기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역사적 체험을 증언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하느님은 수학에서의 공리와 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등장했고,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문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인격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를 경험한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지점에서 예수와 하느님은 점차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요. 또한 예수 승천 이후 계속되는 교회의 활동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서 얻어지는 체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활동하셨던 하느님의 영, 또는 능력으로 표현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 이들에게 그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해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함께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예수의 신성을 무시하는 양자설, 예수의 인성이 약화되는 양태설, 유일신 전통에 균열을 일으키는 삼신설을 모두 부정하는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말해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논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느님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육신 하여 이 땅에 내려와 인간과 함께 울고 웃었던 하느님에 대한 기억의 산물이 곧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유일신 하느님 개념이 세계와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특징화 되었다면 삼위일체 하느님은 인간을 상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보다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성자-성령의 관계는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서로 상호공속적인 관계로 오늘날 공동체가 전체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이기주의로 타락하지 않도록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보아도 좋습니다. 개인이 존중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삼위일체 교리가 이미 내포하고 있고, 이 상징이 주는 의미 또한 꽤 깊다는 것이지요. 신화나 신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 그 이미지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 논의는 유일신 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 체제와 관계 중심의 제도를 생성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삼위일체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하느님 그림을 그리셨지만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그려 보라고 하면 10명 중에 7-8명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구름 위에 궁전에 좌정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그립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느님 이미지를 구별해보면 어떤 분은 저 높이 계신 분으로, 또 어떤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 내내 하느님의 초월과 내재라는 존재 방식이 논의되어 왔고, 고
중세 시대에는 초월적 하느님이 우세했다면 근대 이후 지금까지는 내재하시는 하느님이 더 많
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다뤄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

- 초월
-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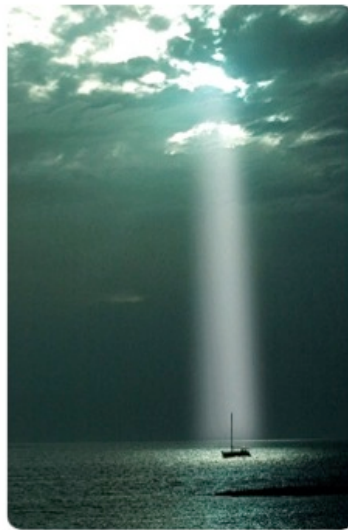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
www.njdongsan
church.org/?
document_srl=1
69](http://www.njdongsanchurch.org/?document_srl=169)

그림 출처, <http://kr.hdscreen.me/wallpaper/2698895-꽃의-깊이-흰색-꽃>

창조주 하느님이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초월성이 확보되는데,
이 초월적 하느님의 이미지는 오늘날 여러 지점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 역사 속에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하느님으로 지배
자와 통치자, 법의 수여자와 심판자, 그리고 남성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하느님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하느님을 초자연자로 혼동하고, 초자연에 의해 통제된 삶이 기독교적 삶으로 잘못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당위적 삶에 대한 내면화된 감시자로 하느님을 보고, 또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인 자연을 분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만
들어 놓았습니다. 군주적인 정치질서 즉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계급적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하느님 신앙이 이용되고,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근대적인 과학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것이 되어, 인간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한 점이 많습니다. 하느님의 초월 개념이 인간의 욕망을 깨부수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역사속에서 초자연적 유신론은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동안 합리주의 전통에서 숨죽여 왔던 신비주의의 신앙이 새롭게
부상되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며, 체제전복적이고 해방과 자유를 향한 역동적 힘으로써의 하느님은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구원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될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됩니다. 하느님의 전능함과 초월은 저 멀리 계시는 공간적 이미지라기 보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시간을 만드시고 변혁을 일으키시는 전능함과 초월로 이해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가고 있는 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하느님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속성과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창조의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 유일하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등등 위에서 나온 것 말고 하느님 앞에 형용사를 붙여 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00 하느님..... 그렇지요. “전능하신 하느님” 만약 하느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시다면 하느님은 하느님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종교적 욕망과 전능하신 하나님

- 힘 숭배
- 좋으신 하나님



그림 출처,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449>

전능하신 하느님을 좀 쉽게 말하면 아마 하느님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느님을 말하고 찾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망,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욕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아마 한국교회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이런 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욕망은 기독교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욕망입니다. 욕망은 그 스스로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다만

나의 욕망이 타인에게 해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나 부딪히게 마련인데,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타인의 욕구를 억압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문제가 생기든 말든 우선 내 욕구부터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경향성은 참 고치기 어려운데, 이런 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교는 원죄설 등을 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느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전능한 힘을 숭배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한 뒤편과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로운 일인데 힘 숭배가 곧 하느님 숭배로 바뀌면 힘으로 하는 것이 정당화 되고, 오늘날은 돈과 권력이 힘이 있으니 사실 교회에서 하느님을 섬긴다면서 결국은 돈과 권력을 섬기는 즉 우상숭배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사진에 나온 이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깊게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말하는데, 언제 좋나요? 좋은 것은 욕구가 충족될 때 좋고, 또 착한 것이 좋지요. 욕구 충족만을 좋다고 하면 하느님은 다시 힘 숭배로 가니,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거나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착한 하느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전능성은 정의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선하실 때 전능이 좋은 것이지 하느님이 악하시다면 그의 전능성은 폭력에 지나지 않겠지요. 하느님의 전능성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은 바로 힘이 정의와 사랑과 함께 가지 않았을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 돌아온 아들 이야기
- 모두에게 내리는 빛
-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

* 하나님 물음의 중요성



그림 출처, <http://shareblessing.com/356>

전능하신 하느님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느님 이미지는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전능’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하느님께 붙일 때 잘 살펴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사랑이신 하느님”은 다르지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성서에도 있지만 “하느님은 전능이시다”라고는 하지 않지요. 즉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고, 전능은 하느님의 한 속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진짜 본질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전능이라는 말을 “사랑”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느님 신앙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 제목을 “예수의 하느님과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붙였는데, 예수가 생각했던 하느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 불리는 누가 복음 15장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말 안듣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살아돌아온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화를 내는 첫째, 이 모두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상하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정효 선생이 쓴 <악부전>이라는 책도 있지만 아마 당시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둘째나 첫째를 냉정하게 대하거나 혼내거나 다시 내쫓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무척 아픈 것을 참아가며 첫째를 달래고 둘째를 맞이합니다. 착한 이나 악한 이나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하느님, 부러진 갈대는 쓸모 없으니 꺾어 버려야 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말끔히 꺼버려야 하지만 이 둘 모두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살리시는 하느님이 예수가 체험했던 아빠 하느님이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창조의 하느님이시고 무한한 분이시라면 그 분이 만드시 창조세계는 그 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분안에 자신과 다른 것이 있으려면 자신을 비워야 하고 자신의 몸을 깎아 생긴 빈 공간에 세상을 창조했어야 하지요. 즉 창조도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지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어찌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지요. 그리고 사랑의 전능이라면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사랑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보복하는 하느님, 파괴하는 하느님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믿었던 하느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칼을 준비 하라고 했던 적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산상설교나 행위,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십자가라는 궁극적 선택을 보면 예수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임이 분명합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힘이 삼위일체가 되었던 사랑이 성부 하느님이고, 정의가 성자 하느님이고, 힘이 성령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의 하느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왜 하느님을 물어야 할까요? 결론을 맺으면서 몇가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느님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우리는 위에서 살핀 대로 알게 모르게 힘을 숭배하면서도 하느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힘 숭배를 넘어서 이제 다시 하느님을 묻는 것은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묻는 것, 하느님-세계-인간의 관계 속에서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던지셨던 두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두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느님을 묻는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종교란 바로 삶의 진정

한 의미를 묻는 것이고 하느님 물음은 바로 그 물음 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하느님 물음에 답은 없습니다. 다만 더 큰 물음을 통해 이전의 작은 물음이 해소될 뿐이지요. 계속해서 물음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물음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 그로 인해 더 깊어지고 질을 달리 하는 물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끝-

참고문헌

- 김균진, <기독교신학 I>,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삼인, 2002.
 제디스 맥그리거, <사랑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11.
 마커스 보그, <새로 만난 하느님>,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엘리자베스 A. 존슨,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북인더갭, 2013.
 길희성, <하나님을 놓아주자>, 도서출판 새길, 2009.
 정재현,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한울, 2006.
 요셉 라칭어, <그리스도 신앙>, 분도출판사, 2007.
 리차드 루벤슈타인, <예수는 어떻게 하느님이 되셨는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양명수, <한국교회, 인문주의에서 배운다>, kmc, 2014.